

1990년대 여성지의 내 집 마련 담론과 여성금융주체의 형성 - 『우먼센스』를 중심으로*

최시현**

1. 들어가며
2. 1990년대 ‘내 집 마련’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 : 아파트, 금융, 젠더의 교차
3. 서사 구조 분석
4. 여성금융주체화 과정으로서의 내 집 마련 담론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국 여성종합잡지에 수록된 ‘내 집 마련’ 수기와 사례기사들을 분석하여, 주택 금융화 초기 단계에서 여성 금융주체가 어떠한 서사적 경로를 통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여성지는 단순한 경제 정보 제공 매체를 넘어, 독자들에게 금융적 윤리와 성별화된 실천을 학습시키는 일상적 금융문화의 매개장치로 기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향한 여성의 욕망은 가정주부적 책무와 긴밀히 결합되며 승인되었고,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조건들은 ‘나쁜 집주인과 고통받는 세입자’라는 개인화된 피해 서사로 전환되어 은폐된다. 절약과 대출을 통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447)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주택 구입 실천은 가족 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의 도덕적 책무로 정당화되며, 독자들은 이를 통해 금융적 책임성과 성별화된 자기규율을 점진적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1990년대 주택보급 확대와 금융자유화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주택매매를 경유하여 금융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였으며, 이로써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이 금융시장에 제도적·문화적으로 접속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의 여성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가계경제 차원에서 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금융 실천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본격화된 국가 주도의 주택금융화에 앞서, 이미 가계경제의 윤리로서 상징적 실천과 일상 담론 속에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사적 재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주택 금융화의 성별화된 경로와 여성 금융주체 형성의 동학을 규명한다.

(주제어: 1990년대, 여성지, 내 집 마련, 금융주체화, 주택금융화, 금융의 여성화, 주부, 우먼센스)

1. 들어가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현상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 특히 금융의 영역에서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소득까지 선제적으로 끌어들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현상은 주로 주택매매 과정에서 등장한다. 현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금융기관과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통해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장

기간에 걸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 금융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가구의 일상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매달 상환하는 현금 흐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구의 재정 운용 전반을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채무 관계 안에 고정시키며, 경제적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든다.¹⁾

이 글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 여성종합잡지에 수록된 ‘내 집 마련’ 관련 수기와 사례 기사들을 분석하여, 이른바 ‘영끌’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기 이전 한국 사회의 초창기 장면을 재구성하고 이를 여성 금융주체화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금융자산이자 투자상품으로 전환되는 제도적·시장적 변화, 즉 본격적인 주택금융화가 제도화된 시점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이후로 평가된다.²⁾ 그러나 주택보급률의 빠른 상승, 민간 금융시장의 성장과 다변화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개별 가구 단위에서 이미 금융적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미시적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금융제도 형성에 앞선 문화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제도와 주체 형성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여성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성 독자들이 경제적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를 주체로 규정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동시에 그들이 따라야 할 이상적 여성상과 윤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규범화하는 복합적 문화 장치로 기능했다.³⁾ 많은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여성지는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별적으로 반영하며 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체 구실을 하였으며,⁴⁾ 특히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아파트 중심의 도시 생활양식을 이

1) 최시현, 「주택 담보 정동경제」, 『문화과학』 제106호, 2021, 59-75쪽.

2) 이후빈·홍다솜,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 1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 『공간과 사회』 제81호, 2022, 9-61쪽.

3)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387-416쪽.

상적 삶의 형태로 부각시키고 여성 독자들이 이를 욕망하고 내면화하도록 유도하였다.⁵⁾ 자가 소유 아파트는 안정된 가정과 낭만적 삶의 상징으로 제시되었고, 여성지는 이를 계층상승 욕망과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정당화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지가 이와 같은 매개적 역할을 통해 여성 금융주체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글은 1990년에서 1997년 사이 여성지에 수록된 '내 집 마련' 관련 수기와 수기의 형식을 차용한 사례 기사들을 수집하여, 아파트 소유를 지향하는 여성 주체들의 절약과 금융 실천을 중심으로 한 자기 서사를 여성 금융주체화 과정으로 분석한다. 분석 대상인 여성지는 고도성장기 중산층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았던 『여원』을 비롯하여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조선』, 『레이디경향』, 『우먼센스』 등 1990년대 여성종합잡지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른바 '잡지 전성시대'를 대표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후발주자 『우먼센스』를 주요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90년대 여성지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제한적 검색을 통해 열람 가능하지만, 『우먼센스』의 경우 서고에서 원본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자료 선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특히 주제와 관련된 기사만을 선별적으로 검색·수집하는 방식보다는, 당시 잡지 전반에 실린 광고와 기사들이 어떤 맥락과 관계망 속에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우먼센스』는 이 시기 매달 부동산 및 투자 관련 정보를

4)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여원], [여성],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3호, 2006, 313-331쪽.

5)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여성지 “여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3호, 2009, 468-509쪽.

별책부록 등을 통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적극적으로 제공해왔다는 점 또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는 여성지 『우먼센스』에서 ‘내 집’, ‘재테크’, ‘입주’, ‘아파트’, ‘체험수기’, ‘장만’, ‘마련’, ‘집값’, ‘알뜰’, ‘투자’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목차 및 초록에서 부분 일치하는 기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확보한 기사들은 해당 잡지의 전권 속 맥락을 고려하며 본문 전체를 읽고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기사는 케이스 기사 1991년 17건, 1992년 7건, 1993년 10건, 1995년 27건, 1996년 14건, 1997년 20건, 그리고 수기 기사 1993년 4건으로, 총 99건의 기사가 분석 자료로 선정되었다.

분석 시점을 1991년부터 1997년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의 영향력이 가장 뚜렷하게 작용하던 시기이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진 이후의 달라진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1년 이후에야 부동산 관련 정보가 다시 여성지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 시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지리적 위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기에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활수기’는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 독자가 자신의 삶과 체험을 서술하는 자기 서사의 한 형태로, 특히 여성문학사의 한 갈래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생활수기는 가난, 결혼, 출산, 질병, 가족부양 등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이 공적 서사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수기는 주로 서민층 여성들의 현실적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함으로써 기존 문학에서 주

변화되었던 여성 일상과 언어를 복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⁶⁾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붐을 이루며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개척했던 ‘생활수기’는 잡지가 요리, 육아, 법률, 건강, 패션 등 전문가 칼럼과 트렌드를 반영한 기사, 라이프스타일 제안 등을 확대하면서 점차 그 지면이 축소되었다. 특히 잡지의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이 높아져 광고 지면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화보 및 스타일링 사진 등 이미지 중심의 구성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수기의 영향력 또한 점차 약화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기’ 형식의 기사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1993년도의 4편의 수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수기들은 1988년 4월 창간한 『우먼센스』가 창간 4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의 당선작 일부에 해당한다. 당시 공모는 ‘육아 및 자녀교육’, ‘건강’, ‘부부 문제’, ‘재테크’, ‘풍요로운 여자의 삶’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시인 김후란, 신달자가 심사에 참여하여 최종 13편의 수기가 당선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4편의 수기는 이 가운데 ‘재테크 체험기’ 부문에 응모된 글들로, 모두 아파트 구매와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이 글이 분석한 95편의 사례 기사는 독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응모한 생활수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사례 기사들은 ‘자유기고가’ 직함을 가진 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의 진술을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의 내러티브를 취하여 독자의 몰입과 당사자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기사들은 해당 인물의 사진, 연령, 이름,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글의 형식은 당사자가 자신

6) 한경희, 「1960년대 주부 ‘생활수기’ 붐의 여성문화사적 의의」, 『여성문학연구』 제59호, 2003, 156-194쪽.

의 이야기를 직접 풀어내는 서술형과, 자유기고가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인터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례 기사들은 ‘전격방문취재’, ‘케이스스터디’, ‘재테크성공기’, ‘주부경험담(체험담)’ 등의 제목 하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식과 구성을 취한다.

주부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양을 중심으로 읽을거리를 제공하던 여성지는 1980~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격에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실생활 정보는 광고로 대체되고, 대부분 기사들은 유명인 사생활, 연예·오락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발간된 여성지가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져 온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지가 제공한 생활 정보는 자녀교육과 가계 자금 관리로 크게 구분되며, 특히 주부 역할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가계 재정 운영과 ‘내 집 마련’과 같은 자산 형성 실천이 1990년대에 들어 더욱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지에 실린 광고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이전까지 여성지는 가사노동, 아내, 어머니 등의 전통적 여성 역할을 강조하는 광고가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험 및 재산증식 상품 등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금융상품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⁷⁾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헌신하는 것이 그 미덕으로 간주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업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사회적 수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쏟아지는 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활용하면서,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상품 소비의 주체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가구 경제의 금융화가 생활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함인희, 「가족주기의 변화와 주부역할의 딜레마-여성잡지 광고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1권 2호, 1991, 47-72쪽.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 ‘내 집 마련’ 성공 수기와 사례 기사는, 개별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기까지의 구체적 실천 과정을 금융 관련 정보와 가족 서사를 결합하여 서술하고 있다. 현대 가정성(domesticity)의 이상은 일반적으로 애정적 가족 유대, 현대 육아 방식, 공사이분법에 기초한 성별화된 실천을 포함하며, 이 같은 이상을 강조하는 기사들은 자가소유를 추구하는 여성 독자에게 바람직한 인간상과 도시에서의 ‘좋은 삶’을 연결시키는 동시에 복잡한 주택 관련 제도·금융 정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⁸⁾ 이러한 점에서 해당 기사들은 가계 금융화 속 여성 금융주체화의 일상적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이 연구가 주목한 1990~1997년 시기 ‘내 집 마련’ 담론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내포하며 당시 금융 실천이 어떻게 가정 내 핵심적 실천으로 부상했는지를 다룬다.

2. 1990년대 ‘내 집 마련’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 아파트, 금융, 젠더의 교차

1990년대는 ‘자유와 소비의 시대’로 규정된다.⁹⁾ 1988년 압구정동에 한국 최초의 맥도날드가 개점하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인 베버리힐

8) Park, E, “South Korean housewives’ emerging economic authority and contestation of domesticity during the Cold War Era”, *Gender and History* 36(2), 2024, pp.711-733.

9)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호, 2010, 307-344쪽.

즈의 로데오 거리에서 차용한 이름이 압구정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 역시 이 시기의 현상이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에 본격적인 대중 소비시대가 도래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적으로 ‘살 만한’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는 소비에 있어 기능적·양적 만족을 넘어 개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하는 질적 만족이 중시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된다. 1990년 한국 최초의 명품관인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의 개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한 필요 충족을 넘어 미적 감각과 유행을 강조하는 지위 소비와 동조 소비가 부각되었으며, 도심 아파트 선호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는 도시민들의 소비 감각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사한다.¹⁰⁾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도시 자가 아파트는 도시 중산층의 상징일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구현 및 도덕적 시민권의 획득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작동해왔다. 도시에서의 아파트 소유는 평균 이상의 계급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가족을 구성·유지·재생산할 안정적 터전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유자사회에서 자산 소유를 통해 모범적인 납세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표식으로도 기능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주택은 필수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안정된 거처의 부재는 일상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자산 기반 복지 체제하에서는 삶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의 부족과 공공주택에 부여된 문화적 낙인은 개별 가구가 자가 소유를 지향하도록 강하게 추동하는 제도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대도시 아파트는 다수 도시민의 열망, 생존, 지위를 직결하는 상징이자 물질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평균적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

10) 남은영, 「1990년대 한국 소비문화: 소비의식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76호, 2007, 189-225쪽.

는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주택을 선점한 계층의 상대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파트가 도시민의 전형적 주거 양식으로 자리잡고, 계층상승 상징으로서의 사회적 열망이 형성되며, 이러한 열망이 여성들의 금융주체화 과정과 결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였는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적 전환기를 1990년에서 1997년 사이로 설정하고, 그 주요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이 시기에 이르러 아파트는 도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거 단독주택이 일반적이던 시기에는 아파트가 획일적인 구조와 실외생활 제약으로 인해 ‘집 같지 않은 사각상자’로 인식되었으며,¹¹⁾ 초기에는 도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거 형태로 평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에서 건설된 주택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이었고, 아파트는 여전히 일부에게는 단독주택에 비해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에 불완전하거나 임시적인 거처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1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확실한 수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¹²⁾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96년에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34.4%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단독주택(34.2%)을 초과하였고, 1999년에는 전체 신규 건설물량의 88%를 차지하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아파트 건설 비중이 감소하고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파트 선호가 감소했다기보다는 건설비용과 구매비용 등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할

11) 『여원』 제7권 2호, 학원사, 1977년 2월, 118쪽.

12)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데이터로 본 서울, 「지표로 본 서울 변천 2003」.

수 있다.

둘째, 이 시기는 1988년 발표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이 급속히 상승한 시기였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은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1990년 당시 전국 주택보급률은 57.9%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전체 일반 가구(총 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의 절반 가까이 무허가 판자촌, 상가주택 등 비정형적 주거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택이 사회적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을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1990년 46만 2천 호, 1991년 75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건설을 단기간에 추진하며 공급 확대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공급 확대의 결과, 1997년에는 주택보급률이 71.4%에 도달하여 많은 도시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선택이 도시민들의 주거 현실로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 시기의 아파트 접근성 확대는 단순한 공급 증가에 그치지 않고 도시민들의 주택구매력 상승과 맞물려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 거시경제 성장, 그리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산층의 급속한 확대를 경험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활발해진 노동쟁의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은 노동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은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 여력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 1988년부터 4년간 시행된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은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며 소득 분배 개선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¹³⁾ 또한 1980년

대 주택 투기로 인한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며, 199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2.2% 상승했으나 1992년에는 4.9% 하락하며 가격 안정세를 보인 점 역시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이 시기 도입된 정부의 금융자유화 정책과 금융실명제는 주택금융화를 촉진하며 개별 가구 차원에서 금융자본주의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금융자유화 정책은 금리 자유화, 금융기관 신설,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였고, 이로써 기존에 개별 가구가 접근하던 적금·예금 상품 중심의 금융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신용상품으로 확장되었다. 이어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과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산축적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개별 가구의 목표를 국가 주도의 도덕적 금융 질서 하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과거 여성이 주도했던 '계(契)'와 같은 소액금융을 넘어 다양한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력과 금융 소비 역량이 중요한 자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여성지에 증가한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기관과 국가가 여성을 새로운 금융 소비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며, 가정주부가 관리하는 가계 자금이 시장금융으로 유입되는 핵심 통로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금융산업 확대는 여성과 금융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여성의 가계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의 주류화, 대규모 주택 공급, 주택구매력의 상승, 가구 경제의 금융화라는 일련의 구조적 요인들은 1990년대 '내

13) 장성수, 「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시장의 전개: 문민 3 대통령의 주택정책 평가 시론」, 『환경논총』 제43호, 2005, 323-339쪽.

집 마련'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당시 '내 집 마련' 담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중산층 관념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나타났다. 주택 구입을 통한 가구의 자산 형성은 중산층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강조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주체의 형성과 주택의 상품화 전략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 담론이 주거와 복지 문제를 상품화된 주택 소비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¹⁴⁾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90년대 개별 가구 내 여성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과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금융 실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여성지에 수록된 수기와 사례 기사를 분석하였다. 여성지는 여성의 감정, 욕망, 정치의식을 '교양'이라는 명목으로 길들이는 동시에, 젠더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매체로 기능해왔다. 특히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수기와 사례 기사에 나타나는 반복적 서사 구조와 금융화의 양상은 당대 도시민이 주택을 어떠한 대상으로 상상하고, 어떤 금융 실천을 통해 이를 획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합적 인식을 보여주는 징후적 텍스트¹⁵⁾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14) 이은지,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23쪽.

15) 수잔나 D. 윌터스(1999)는 저자(창작자)가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때로 인식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드러나는 텍스트를 징후적 텍스트라고 정의하였다.

3. 서사 구조 분석

3-1. ‘좋은 욕심’으로 승인되는 여성의 내 집 마련 열망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야망으로 추구되는 것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망은 성별화된 방식으로 규율된다. 특히 야망이 크거나 경제적 수완이 탁월한 여성을 향해 ‘복부인’, ‘마담뚜’와 같은 부정적 인간형의 멸칭이 부여되어 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아내이자 어머니로 정체화된 여성의 경우, 경제적 욕망은 특정한 목적성을 갖춘 성별화된 욕망으로 표상될 때야 비로소 사회적 승인 가능성을 획득한다.

이 기사에서 서사를 이끄는 핵심적 욕망은 ‘내 집 마련’의 욕망이다. 주택, 특히 이 시기 부동산으로서의 주택은 고액의 자본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집에 대한 욕망은 곧 돈에 대한 욕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돈을 언급하고 돈을 욕망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불온한 존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 기사 속 어머니이자 부인으로서의 여성은 가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정주부화된 욕망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승인받는다.

대개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목전에 두고서야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나는 연애할 때부터 유달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가 숫자나 돈 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맡겨놓았다가는 하세월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의 조바심은 더 컸다. 유달리 집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돌입했다.¹⁶⁾

이 기사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과 실천의 동기가 특별한 서사적 정당화 없이, 단순히 집에 대한 강한 욕구로 표출된다. 만일 1990년대 결혼한 여성이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경제활동을 전개하였다면, 종종 어려운 가정사나 특별한 배경 서사를 통해 그 욕망을 정당화하는 내러티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에 대한 욕망은 젠더화된 사회적 각본 속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부인’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제적 야망 역시 도덕적 승인 아래 놓인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통해 습득된 투기적 감각이나 재테크 기술 역시 젠더화된 생애 각본의 연속선상에서 정당화된다.

같은 기사에서 주택 매입에 약 1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여성은, 이 중 6천만 원을 은행 금융상품을 활용한 대출로 조달할 계획을 밝히고, 적금 저당 설정을 통한 추가 대출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상품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에서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는 내 집 마련의 실현 가능성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 정보수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내 집 마련’이 단순한 주거 안정 차원을 넘어 부의 축적과 직결되는 서사는 다른 기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만 있으면 현실에 그냥 만족하지만,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물론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당한

16) 〈남편과 별도로 부업을 하는 주부들의 금융재테크법〉, 『우먼센스』 제105호, 서울문화사, 1997년 4월, 745쪽.

욕심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제가 부천에서 집을 사서 계속 살았다면 지금처럼 서울에다 내집 장만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¹⁷⁾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라는 제목을 내건 이 기사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여성의 욕망이 어떻게 승인되고 확장되어 부의 축적 나아가 서울중심성까지를 생산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 사례의 가구는 이미 수년 전 부천 지역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인 가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울 중심부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핵심적 공간임을 인지한 이후 여성이 주도하여 서울로의 이주를 결정하였다. 이후 이 가족은 부천에서 서울로의 이주를 했고 이 글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축적 경험을 상세히 서술한다. 여기서 서울은 ‘높은 물가’로 인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문화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높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사에서는 여성 인터뷰의 다음과 같은 인용을 제시한다: “(부천에서)이러다가 평퍼짐한 지방 아줌마(?)가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 두려웠다.” 잡지는 이러한 표현을 ‘이런 신사고(?)’라고 덧붙이며 소개한다. 기사 제목이 서울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편집진의 서울 중심주의적 의도를 반영하지만, 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은 여성의 표현에 괄호와 물음표를 반복적으로 부여한 것은 잡지가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중적 편집 태도로 읽힌다.

이 기사에서 서울 이외 지역의 자가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하여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은 ‘적당한 욕심’, 즉 ‘좋은 욕심’으로 재의미화된다. 서울에서의 아파트 소유까지는 승인되지만, 그 이상은 평범한 여성에게는 과도한 것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가 소

17)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 『우먼센스』 제8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1월, 746쪽.

유를 통한 경제적 추구하고 자산축적 욕망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좋은’ 욕심으로 규율된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경제생활이 실천되고 의미화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주택의 위치를 부각한다. ‘내 집 마련’이라는 젠더화된 욕망은 이러한 실천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며, 이는 곧 자본축적 실천으로 이행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는 여성을 ‘똑똑한 주부’로 만드는 지식의 기반이자 재정적 자아(financial self)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 이때 돈에 대한 기대와 태도는 성별화된 방식으로 형성되며, 여성의 재정적 자아 형성 과정에서 기사들은 여성과 가정에 부여된 사회적 각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덕적 승인과 안전장치를 동시에 확보한다.

3-2. 나쁜 집주인과 고통받는 세입자 : 주거불평등의 개인화된 서사 전략

내 집 소유라는 ‘적당한 욕심’이 여성에게 허용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한편, 이러한 경제적 욕망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조건 또한 필요하다. 많은 기사에서는 여성이 내 집 마련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집주인’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설움의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 전국 주택 보급률이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단순히 자가 소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반영하는 지표였다. 주택 재고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약 40%는 미인가 주택이나 판자촌과 같은 열악한 거처에서 거주하며 대도시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이와 같은 절대적 공급 부족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려 도시주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내 집 마련의 좌절은 누구나 쉽게 예상 가능한 일상이 되었고, 특히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희소성과 지역 격차가 결합하여 투기적 실천을 더욱 조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전주의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개입하며 가족정치와 인구정치를 수행해왔다. 아파트 청약제도와 같은 주택 배분 정책은 누가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국가가 공급에 적극 관여한 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추는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자가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국가가 부여하는 제도적 자격에 따라 위계화하였다. 이때 아파트 청약 자격의 부여 기준은 정부가 설정한 가족 및 인구정책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률은 이러한 인구정책의 정책적 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사들 속에서 개별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열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무소불능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주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서사화된다. 이러한 피해 서사는 많은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내 집 마련의 욕망을 도덕적이고 정당한 생존 전략으로 의미화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한다.

서울에서 자란 나는 친정집이 집을 살 때까지 셀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다. 예전에는 집 인심도 야박해서 아이들이 많아도 세를 얻을 수 없었고, 주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방을 비워 주어야 했다. 그야말로 집 주인은 무소불능의 권력을 소유한 삶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세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굶신거리야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집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많았다.¹⁸⁾

18) 〈부모도움없이 내집을 마련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8인의 '내집마련기': 내집 마련에는 자금보다는 정보가 우선입니다〉, 『우먼센스』 제7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월, 558쪽.

〈내 집 마련에는 자금보다는 정보가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내 집 마련의 직접적 동인을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나쁜 집주인’으로 지목한다. 결혼 이후 반지하 단칸셋방에서 생활을 시작한 여성은 임신을 계기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입자들은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 근교의 소도시로 밀려났다”며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우리는 당시 5백만 원이라는 큰돈을 올려주어야 했다. 반년만 더 고생하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두었는데 허탈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도저히 집을 살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근로자 복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입수하여 당첨됨으로써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 속 개별 서사에서 ‘집주인’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속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 계약기간 연장 등 핵심 결정권이 임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재계약 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는 이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사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복잡한 시간적·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사건이므로, 많은 세입자들은 한 집에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 확보는 결국 임대인이라는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 인격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으로 서사화된다. 실제로 주택매매와 임대 계약을 결정짓는 근본적 요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국가정책이나 거시경제적 유동성 흐름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개인화된 임대인-세입자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 주거불평등의 정치경제적 논의는 대개 소거되며, ‘인정도 자비도 없는 몰상식한 집주인’과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세입자 가구’라는

개별적, 이분법적 구도가 반복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결국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도 내 집을 갖고야 말겠다’는 서사적 결심이 구축된다.

이러한 내 집 마련 실천 과정에서 또 다른 외부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돈 많은 이들에게만 너그러운 공인중개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실현했는가에 대한 실질적 실천 경로가 상세히 제시된다. 종자돈이 충분하지 않은 형편에서 저렴한 주택을 찾아 부동산 시장을 탐색하는 과정이 기사 전반에 걸쳐 서사화되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큰 목돈이 없는 이들을 홀대하거나 좌절시키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역시 자산이 취약한 세입자들에게는 냉혹한 시장 논리를 구현하는 외부 압력으로 기능하며,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적 장치로 작동한다.

안 먹고, 안 다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것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부풀려갔다.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돈이 없을 때는 초조감도 없이 단지 내 집에 대한 열망뿐이었는데 얼마라도 목돈이 생기고 나니 떨어지는 돈 값어치 때문에 초조해졌다. 지난해 초, 4년 동안 피나는 절약의 대가로 모은 1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들고 내 집을 가져볼까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을 때다. 나는 그때 6백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보태면 13평 정도는 용자를 끼고 장만하려니 했다. “아줌마 전세나 가보세요” 첫마디가 그랬다. ‘이 아줌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사나?’라는 표정이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 ‘박박 긁으면 3천만원은 돼요’ 했더니 (그 금액으로는)무허가도 힘들다는 것이다.¹⁹⁾

19) 〈3천만원~5천만원으로 내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청약저축 회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자격 얻었어요〉, 『우먼센스』 제34호, 서울문화사, 1991년 5월, 598쪽.

집주인이 세입자 가구의 어려운 조건을 고려해주지 않아 이사를 결심하고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으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개업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홀로 눈물을 흘리며 내 집 마련의 욕망을 더욱 키워가는 장면은 이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 장면이다.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로 “당당한 집주인에 비해 초라한 나”²⁰⁾로 느끼는 경험은 결국 임차인에서 임대인, 즉 자가소유자로서의 지위 전환을 실현해야만 이러한 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각성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주거 불평등과 주거불안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나쁜 집주인’과 ‘고통받는 세입자’라는 일대일의 개별적 관계 속 갈등으로 축소되어 서사화되며,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 안정과 행복한 가족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 역시 집주인-세입자 간의 관계로 환원된다.

한편, 드물게는 발전주의 국가의 주택배분 체계로서 아파트 청약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청약 당첨제도에서 필요한 ‘운’의 불공정성, 소득상승과 비례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문제 삼는 사례들도 일부 기사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제기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머물며, 전체 서사 속에서는 여전히 개별 세입자의 도덕적 노력과 자구적 금융 실천이 내 집 마련 성공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된다.

아파트 분양처럼 불공평한 것도 없었다.(중략) 아무리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액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에게는 맥 빠지는 일이었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²¹⁾

20) 〈부모도움없이 내집을 마련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8인의 ‘내집마련기’〉: 내집 마련에는 자금보다는 정보가 우선입니다, 『우먼센스』 제7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월, 558쪽.

21) 〈내집 마련에 성공한 주부들의 체험에서 배운다: 남편이 출장간 사이에 과감하게 재건축

열심히 일해 어렵게 돈을 모아도 주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 세입자 불안정성의 구조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서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개별 가구와 여성이 어떻게 자가 소유에 도달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서사의 특성상, 구조적 불평등과 정치경제적 논의를 전면화하는 것은 내러티브 차원에서 한계에 직면한다. 독자들이 경험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궁극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초래한 결과임을 인지할 수 있으나, 현실 속에서 이 구조는 '나쁜 집주인'이라는 구체적 인격의 형태로 전유되어 드러난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열망에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쉽게 감정화할 수 있는 개별화된 서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문화적 장치로서 여성지가 당대 여성들의 욕망과 기대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점이다.

아파트 청약에 몰리는 과도한 청약통장 수와 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첨자 수에서 확인되듯, 내 집 마련 욕망은 제한된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 속에서 경쟁적으로 구조화되고 계급적으로 조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현실조차도 기사 서사에서는 무주택자가 겪는 실존적 고통을 '집주인', '부동산업자'와 같은 개인화된 타자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에게 억울함과 설움을 초래한 구체적 존재를 상상하고 형상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적 적개심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한 강력한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서사적 효과로 작동한다.

3-3. 고생의 성별화

이 서사의 중심은 '집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아파트에 투자, 성공했어요>, 『우먼센스』 제96호, 서울문화사, 1996년 7월, 742쪽.

방법의 제시에 있다. 기사들에는 자가소유라는 지위의 획득뿐 아니라, 이후 임대인 혹은 다주택자로 전환되는 경로까지의 금융 실천과 전략이 세밀하게 소개된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속자나 전문직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혹은 서민층에 속하는 이들로 설정된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성공 사례는 독자들에게 강한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특히 이 서사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사야만 하는 이중의 요구’ 속에서 소시민이 수행하는 절약, 재정관리, 버티기의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며, 이를 여성지 특유의 젠더화된 담론으로 감정적 공감과 실용적 정보를 결합하여 전달한다. 독자들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필자의 전략과 실천을 학습함으로써, 자신 또한 ‘없는 살림에도 마련할 수 있는 내 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림 1〉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1990

이 서사의 핵심적 실천 전략은 금욕적 경제윤리로서의 절약이다. 근검 절약은 발전주의 국가가 국민, 특히 ‘내무부 장관’으로 불리던 가정주부에

게 요구한 핵심 윤리였으며, 국가는 여성에게 합리적 소비와 절약의 문화 규범을 적극적으로 내면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 제시한 1990년 새마을운동 포스터이다. 발전주의 국가는 가계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가계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저축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곧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절약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성별화된 실천으로 규율되었다. 소비문화가 국가의 발전을 상징하며 대중으로 확산되던 1990년대에도 여성의 과소비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절약은 여전히 여성에게 부여되는 핵심 규범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실현한 여성들이 절약을 어떻게 수행하고 자신을 구별했는가는 이 젠더화된 서사의 핵심 주제로 작동한다.

절약은 생산이 아닌 소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실천으로, 여성지 기사 속 여성들은 무임금 예산관리자이자 가정의 재정적 관리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치와 낭비를 피하는 이상화된 알뜰형 여성으로 재현된다. 여성지는 이러한 절약 실천을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재현하며 여성에게 가정을 기업처럼 경영하도록 하는 가정경제학적 교육 효과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여성이 다루는 돈은 시장 화폐와는 구별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띠며, 이 돈은 가족 가치와 시민성, 그리고 가정성의 이념과 긴밀히 결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젤라이저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경제의 확산 속에서 기혼여성이 고정 소득 없이도 ‘살림비’ 조절을 통해 재정 운영의 주체로 부상한다고 분석한다.²³⁾ 여성지 속 절약 서사는 특히 수기 형식에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며 내 집 마련의 핵심 전략으로 기능한다. 다

22)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2020, 서울대학교출판부.

23) Zelizer, V. A. "The social meaning of money: "special m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2), 1989, pp.342-377.

음은 그 예로서 ‘단칸방에서 시작, 내 집 마련한 주부 6인 나의 알뜰 살림 & 재테크 비법 공개’에 수록된 일부 사례이다.

여름이면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로 버티었다. 머리는 짧은 머리 파마를 한번 하고 기른 뒤에 다시 한번 커트를 친다. 그러다 정 머리가 지저분하면 값이 싼 미용실에서 1년에 한 두 번 파마를 했다. 전화비 걱정으로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고 지냈다. 임신해서 배가 산처럼 볼렀을 때 모 제약회사에서 임신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임신복은 거의 없다시피 지냈기 때문에 큰 마음먹고 1만원 정도를 투자해 임신복을 구입하고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참석했다. 그런데 세미나장에 가보니 창피해서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임신부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니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싸구려 임신복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은 정말 처량해 보였다. 행여 친구라도 만날까 봐 두려울 정도였다.²⁴⁾

1990년대는 가구소득 증가와 소비의 질적 팽창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중소비시대였으나, 1997년 여성지에 수록된 이 기사는 이러한 시대적 소비 담론과 일정 부분 괴리되는, 돌출적 서사로 읽힌다. 기사에 나타난 극도의 절제와 절약 실천은 외모 관리, 인간관계, 심지어 개인위생 영역까지 확장되며 묘사된다. 예를 들어, “전화비를 걱정”하여 친구 관계를 절제하고 비자발적 고립 상태에 놓이는 경험, 수도세 절감을 위해 배변 활동까지 통제하는 장면 등은 독자들에게 강한 현실감을 제공한다. 특히 임신 상태에서 겪는 외모와 의복 관련 에피소드는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위축을 강조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감정적 동일시를 촉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24) 〈단칸방에서 시작, 내집 마련한 주부6인 ‘나의 알뜰살뜰 & 재테크법 공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돈을 모으자는 결심에 신희 초부터 허리띠를 졸라맸지요〉, 『우먼센스』 제 103호, 서울문화사, 1997년 2월, 678쪽.

또한 “배추 1포기를 사면 길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거짓국을 끓여 먹고, 다음 날 남은 속으로 배추쌈을 만들어 먹으며, 파가 비쌀 경우 양파로 대체하여 식비를 절감하는” 생활 방식은 궁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해낸 가정주부의 생활 지혜로 소개된다. 이처럼 절약의 미덕은 개인적 근면과 도덕적 수양의 산물로 재현되며, 자가소유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성들의 금욕적 실천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모범적으로 제시된다.

물은 자기 전에 받아서 쓰는데 욕조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밤새 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은 계량기에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짜로 쓸 수 있다.²⁵⁾

절약 서사는 모든 기사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며, 여성들의 절약 실천은 문화적이고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로 강조된다. 금융자율화가 진전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여성에게 금융상품의 활용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극단적 절약의 실천이다.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대 생활 수준을 초과하는 절제와 자기훈육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돈과 맺는 관계 속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은 절약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자기 통제 능력을 통해 구성된다.

기사들은 절약을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광범위한 자기관리 기술

25) <단칸방에서 시작, 내집 마련한 주부6인 '나의 알뜰살뜰 & 재테크법 공개': 13년째 써온 13권의 가계부가 제 알뜰살림 비결입니다>, 『우먼센스』 제103호, 서울문화사, 1997년 2월, 679쪽.

의 총체로 서술한다. 여성은 장기간에 걸친 금융적 실천을 통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정당한 부를 획득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여성의 절약 실천은 금융주체화에 선행하는 재정적 자아 형성의 핵심이자, 젠더화된 경제윤리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3-4. 소유 이후의 감사와 겸양

‘고생 끝에 얻은 내 집’ 서사는 사후적으로 특정한 감정의 정치를 수반한다. 주택보급률이 여전히 낮고 주거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도심 아파트는 다수 도시민들에게 열패감을 유발하는 상징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경쟁에서 ‘승리한 자’—특히 여성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경험을 기쁨이나 성취감으로만 전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쉽게 승인되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감내한 ‘고통스러운 절약’의 서사가 강조되는 이유가 자리한다.

이 서사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여성이 표출하는 감정은 성취감이나 자부심보다는 감사와 겸양의 정서로 대표되며, 이는 여성이 획득한 경제적 자원과 지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적 규범을 재생산한다. 특히 이 과정에 동참한 남성 배우자의 기여가 적극적으로 부각되며, 가족 공동의 절약 실천이 내 집 마련의 결정적 요인으로 강조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 성공 수기에서 “군인 남편과 내 집 마련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어렵게 결혼생활”을 이끈 저자는 “구두

를 여러 번 굵을 갈아 신고”, “장아찌 반찬을 주된 반찬 삼아”라며 저축을 실현하고, 결국 1순위 통장을 통해 아파트 당첨에 이르렀다. 수기 말미에서 저자는 남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렵게 이룬 자가소유의 성취감을 ‘성장을 지켜봐 준’ 남편의 이해와 지원에 귀속시킨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성별화된 문화적 기대가 작동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실드는 맞벌이 가구에서 가정 내 분업에 참여하는 남성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도와준다’고 표현되고, 여성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상호작용을 젠더전략으로서의 ‘감사의 교환경제(economy of gratitude)’라 명명한 바 있다.²⁶⁾ 절약 실천에 동참하는 남성 배우자와의 협력 서사가 강조됨에도, 기사들은 이 과정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완결시키는 주체가 여성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를 여성의 역량이나 금융적 기지로 부각하기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사명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부인됨의 자세를 통해 서사화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문화적 승인 조건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감사의 교환경제라 할 수 있다.

시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팔이며 채소, 양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져다주셨다. 그러니 생활비라야 세금하고 남편의 용돈과 아이들의 우유값 정도이니 우리들이 집을 산 것도 받은 시부모님의 덕이기도 하다.²⁷⁾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여성이 남성 배우자와 시가에 대한 감사를 각별히

26) Hochschild, A. and Machung, A.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2012.

27) 〈부모도움없이 내집을 마련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8인의 ‘내집 마련기’: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절약하면서 내집 마련에 일조했습니다〉, 『우먼센스』 제7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월, 557쪽.

표하는 것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구현된 경제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성별 기대에 대한 여성의 전략적 대응이며, 관계노동(relational work)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와 감격이라는 감정의 강조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경제적 실천이 단순한 시장 행위를 넘어 가족 간 협력과 사회적 관계의 유지 및 재구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행위임을 드러낸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여성이 추가적인 경제적 욕망을 확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제한된다. 다수의 서사에서는 ‘자족’과 ‘분수’의 윤리를 강조하며 욕망의 확장을 스스로 제어하는 태도를 미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13년 만에 장만한 25평 아파트가 ‘대궐’같다”²⁸⁾고 표현하며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간주된다. 혹은 “분수껏 살자’가 인생의 모토”²⁹⁾라는 진술처럼, 어렵게 획득한 자가소유의 지위에 만족하고 추가적인 욕망을 자제하는 결심이 강하게 강조된다.

이처럼 집주인의 구박에서 벗어나고, 빈번한 이사에서 해방되어 자가를 획득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경제적 추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제시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결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명예와 부는 자연히 주어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교훈에 도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이제 경제적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여자로서 집안일만 신경쓰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가정주부라는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으로 서사화되며, 여성의 경제적 성취를 다시금 가정의 사적영역으로 환원하는 문화적 규범을 강화한다.

28) <3천만원~5천만원으로 내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13년만에 장만한 23평 아파트, 우리에겐 대궐과도 같아요>, 『우먼센스』 제34호, 서울문화사, 1991년 5월, 597쪽.

29) <평촌에 첫 입주한 젊은 부부들 7인의 사연: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비슷해 가족같은 느낌이에요>, 『우먼센스』 제46호, 서울문화사, 1992년 5월, 551쪽.

4. 여성금융주체화 과정으로서의 내 집 마련 담론

한국의 ‘계’는 공식 금융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가정주부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일종의 소액금융으로, 개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성 주도의 풀뿌리 금융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1970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70% 이상이 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당대 ‘계’의 영향력과 보편성을 가늠하게 한다. 여성들이 가정 내 자금 관리를 담당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언론에서 본격화된 ‘경제권’ 논쟁과 이른바 ‘월급봉투’ 관리의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 남성이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여 여성이 이를 관리하는 분업적 가족 경제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및 가족임금제의 핵심 구성 원리로서 장기간 근대적 가족 규범의 바탕이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남성이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도 여성들이 다양한 비공식적 영역에서 노동하며 부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반찬값’ 혹은 이차소득으로 간주되며 비가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정주부가 가구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가정경영’으로 명명하며, 기업 CEO처럼 재정을 노련하게 관리하는 현명한 아내상이 적극적으로 상찬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 과정을 거쳐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여성이 가정의 경제권을 통제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⁰⁾

따라서 여성지 내 ‘내 집 마련’ 서사에서 강조되는 핵심은 남성 가장이 벌어들인 소득을 여성이 새롭게 습득한 금융 지식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어

30) Park E, 앞의 글.

떻게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가계의 재정적 결정을 내렸는가에 집중된다. 즉, 여성의 금융 실천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의사결정의 실질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는 통로로 기능하며, 젠더화된 금융주체화의 중요한 양상을 구성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계’와 같은 소액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금융자율화 정책이 자리한다.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금융자율화 시행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금융 시스템 재편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금융 운영에서 시장 경쟁 중심으로의 이행을 본격화한 조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주택건설 촉진과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주택 대출 상품이 도입되었다. 당시 제공된 대출상품은 20년 만기, 연 7.5~9.5% 이율 등 당시 기준 비교적 장기적이고 저렴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다변화가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간주택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대출상품 중 유리한 조건을 선별하여 선택하는 금융 소비 주체로 점차 이행하였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주택은행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 은행 차원의 저축증강운동이 국가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금융 열기 속에서 1992년 출시된 ‘차세대주택통장’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계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주택은행은 총예수금 10조 3,372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대출상품은 당시 국가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던 낮은 자가소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초기에는 무주택자의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자가소유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7년 5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로자저축제도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모든 은행이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9년 1월부터는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이 도입되었고, 1995년부터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허용되면서 개인 차원의 주택자금 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³¹⁾

개별 가구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이 확대되면서, 가정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리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좁혀지기 시작하였다. 오로지 소득 또는 가족자산에 의존하여 형성되던 가계경제 내 자금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자본 사이에 존재하던 공고한 경계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의 활용을 통해 점차 허물어졌다. 빠르게 금융화되고 있는 주택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에 대한 금융 지식과 정보가 내 집 마련 실천에 있어 결정적 전략으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주체인 여성은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계경제를 금융시장과 직접 연결하는 실천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금융주체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의 금융 실천은 여성 금융주체화 형성의 중요한 전환기로 주목된다.

여성지 기사들은 개별 가구가 가족의 생애과정과 내 집 마련 열망을 금융시장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서사적 방식을 통해 문화적 금융교육의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 기사들은 단순히 금융상품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와 유사한 조건에 처한 인물이 한정된 소득 속에서도 어떻

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대출, 이러다 큰 일 납니다”, 2007.3.12.

게 ‘지혜롭게’ 금융적 역량을 발휘하여 결국 자신이 꿈꾸던 도시에 주거 안정을 실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적 구성은 대중을 공식 금융시장으로 대거 편입시키는 매개장치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대중은 새로운 금융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³²⁾ 특히 기사 속 여성들은 단순히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했는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떠한 가족구성과 삶의 국면 속에서 왜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장기간 유지·관리해 나가는지를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이는 금융화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실질적 주체화 과정을 조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사들은 여성들이 자가 소유라는 생애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택 담보대출 상품과 맺는 금융계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저축과 대출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저축이란 현금을 축적하는 행위이며,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선취하여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감수하는 것이므로, 집값 하락이나 상환 불능의 위험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재정적 리스크를 내포하는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규모 부채를 감수하는 금융 실천이 다수의 개인에게 쉽게 상상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으나, 여성지 기사들은 이 위험을 감내하고 이를 실천하는 평범한 주부들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기사들은 독자와 유사한 조건에 처한 보통의 가정주부가 어떠한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했으며,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매달 얼마의 고정지출을 감내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갔는지를 상세히 기술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처지에서도 학습가능하고 재현가능

32) Aitken, R. “Capital at its fringes”. *New Political Economy* 11(4), 2006, pp.479-498.

한 금융실천의 구체적 모델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화 시대의 위험 감수는 개인화된 금융주체의 일상적 실천으로 내면화되며, 이러한 서사는 금융적 자기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금융윤리의 대중적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분당보다 분양가가 비싸 27평짜리에 신청을 했지만 기대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 당첨이 되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계약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데 3~4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 내어야 했다. 한 번에 5백만원 이상씩을 넣어야 하는데 월급쟁이들에게 그런 큰 돈을, 그것도 매번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준비해두었던 것이 모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도금 납입자금’이었다.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다 10년 동안 상환하면 되므로 큰 부담은 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는 일사천리로 끝났는데 같이 사는 시동생들에게 방을 하나씩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³³⁾

위의 사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관련 은행상품을 100% 이용했습니다>라는 제목하에,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과 지출, 선택한 금융상품 및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재정적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월급쟁이에게 큰돈’이라는 자금 조달 문제는 금융권과의 장기적 거래를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한 목표로 제시되며, 이러한 10년간의 상환 계획을 통해 여성들이 가정영역에서 금융 거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하게 된 것은 금융에 대한 기존 인

33) <부모도움없이 내 집을 마련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8인의 내 집 마련기: 내집 마련에는 자금보다는 정보가 우선입니다>, 『우먼센스』 제7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월, 559쪽.

식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금융은 차갑고 이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가정의 사적영역과 분리된 적대적 세계(hostile worlds)로 인식되었으나, 이 시기를 경과하며 금융이 여성의 세계인 가정경제 중심으로 이입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³⁴⁾ 금융자율화 정책의 실행과 주택 담보대출상품의 대중적 확대는 가정 내 일상적 금융기술의 관리가 중요해지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는 돈에 부여되는 정서적 의미 자체를 재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성지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서사성을 부여함으로써 돈의 사회적 의미를 전환시키는 문화적 중재장치로 작동하였다. 예를 들어, 대출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가 소유에 성공한 한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돈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결국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저축인 셈”³⁵⁾이라는 서사를 통해, 절약과 저축 중심의 전통적 알뜰주부 윤리에서 대출 상환을 새로운 형태의 저축으로 의미화하는 전환이 이루어진다. 금융상품의 활용이 단회적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재정 구조를 형성하는 지속적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출 활용에 따른 구체적 재정 부담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중요한 학습 기제가 된다. 기사들은 얼마를 대출받아 매 월 얼마를 불입하며, 몇 년간 상환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금융상품 이용의 구체적 실천 경로를 독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한다.

34) Zelizer, V. A. “The purchase of intimacy”. *Law & Social Inquiry* 25(3), 2000. pp.817-848.

35) <안전한 금융상품 이용으로 내집 마련하고 돈 불리기에 성공한 주부9인의 효과적인 ‘금융재테크법’: 이곳저곳 빚이 많지만 3년 후 비과세신탁과 적금이 만기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우먼센스』 제105호, 서울문화사, 1997년 4월, 747쪽.

앞으로 1년 뒤 5천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금고에서 불린 돈을 제외하고서도 3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그 자금은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3년 만기 3천만원짜리 상호부금에 가입,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달 72만9천원씩을 불입하게 되는데 가입 후 계약기간의 1/3회차 이상 불입시에는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3천만원은 상호부금을 이용, 대출을 받을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1년 뒤 집을 구입할 즈음에는 5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은행의 상호부금 통장을 이용, 3천만원을 대출받은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만원씩을 남은 기간 동안인 24개월동안 매달 상환해야 한다. 거기에서 주택자금으로 20년 상환, 2천5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매달 27만원씩 20년간 불입을 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부금이 끝날 때까지 2년간은 매달 110만원 정도씩 불입을 하다가 국민은행의 상호부금 만기가 되는 시점부터는 주택은행에 27만원씩만 상환되면 되는 셈이다.³⁶⁾

이 기사는 <금융상품 이용해 빨리 5천만원 만드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구성된 기획 기사로, 각기 다른 5가구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사례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기사는 단순히 은행명이나 상품명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매월 상환액, 불입 기간, 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금융상품 활용의 실질적 경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가구 재정의 금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확보하게 되며, 금융적 실천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가계 재정의 일상적 관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36) <금융상품 이용해 빨리 5천만원 만드는 5가지 방법 : 내 월급에 맞게, 목적에 맞게,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목돈을 모으는 방법 철저 연구>, 『우먼센스』 제81호, 서울문화사, 1995년 4월, 570쪽.

임씨가 분양가 8천8백만원 하는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빌린 돈은 시동생에게 1천만원, 은행 2곳의 융자 2천5백만원을 합쳐 모두 3천5백만원이다. 물론 은행에 많은 주택상품들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귀띔하는 임씨는 자신은 준비를 미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를 받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는다. 임씨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천5백만원도 자신과 직장 동료 2명의 이름으로 각각 5백만원의 생활자금으로 융자받은 것이라고 한다.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록까지 마친 주택담보가 필요한데 입주 시기가 멀어 중도금으로는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임씨는 입주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이자가 낮은 주택은행의 20년 상환 융자를 받아 다른 은행의 빚을 갚을 생각이다.³⁷⁾

〈신혼생활 재미요? 앞으로 3, 4년은 빚 갚느라 정신없을 거예요〉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가족금융, 제도금융, 그리고 지인과의 비공식적 계약이 혼용되는 금융실천의 복합적 구조를 보여준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규모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일시에 받기보다, 먼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초기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이후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은행 차입금을 상환한 뒤 장기 20년 상환 계획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제시된다. 이러한 실천은 금융기관과의 대출 거래를 주저하는 가구가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 금융권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을 보여주며, 제도금융과 비제도금융이 긴밀히 혼합되는 한국적 금융실천의 한 양상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 기사는 가족 금융뿐 아니라 금융기관 상품 간 이자율, 상환 조건, 가능 시기 등을 비교·분석하여 가구 경제에 보다 유리한 선택을 모색하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전략을 강조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

37) 〈전세 대신 작은집 마련한 이유&집 장만까지 돈 마련하는 법 공개: “신혼생활 재미요? 앞으로 3,4년간은 빚 갚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우먼센스』 제8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1월, 671쪽.

자율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대출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였고, 소비자들은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비교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저리·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계약서 등 복잡한 서류 제출과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적 절차를 요구했기에 발품을 팔아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실질적 금융노동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일부 가구는 주택금융 외에도 할부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아래 기사에서는 바로 이처럼 주택금융이 아닌 할부금융을 활용하여 자가 소유를 실현한 사례가 소개된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진입의 다층적 경로와 위험 관리 방식이 세 부적으로 드러난다.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율이 썩 대신 주택계약서를 비롯한 제반서류가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불편했다. (중략) 하지만 할부금융은 대출 이자가 만만치가 않다. 나의 경우 대출을 2천만원 받아 3년 거치, 7년 상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3년 동안은 매월 이자 20만원을 내고 그 이후부터 7년 동안은 원금에 이자를 합한 36만원씩을 내야 한다. 이율이 13.4%에 달한다고 하니 은행이자보다 2~3%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할부금융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³⁸⁾

이와 같은 여성의 금융주체화 과정은 남성 배우자에 대한 여성 주부의 재정적 의존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판단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

38) 〈안전한 금융상품 이용으로 내집마련하고 돈 불리기에 성공한 주부 9인의 효과적인 금융재테크법: 비싼 이자를 물긴 했지만 할부금융을 시의적절하게 이용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먼센스』 제105호, 서울문화사, 1997년 4월, 741쪽.

다. 가족임금제의 상징성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주류 담론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도, 남성이 취득한 임금의 절대적 크기보다 이를 여성 주부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가가 보다 결정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을 이 기사들은 여실히 보여준다. 즉, '월급'을 단순한 소득 축적 차원에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자가 소유를 통한 자산축적 경로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성의 금융적 선택과 실행 역량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기사들은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부인이 산 집'이라는 내 집 마련 서사를 금융화 과정을 통해 완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여성의 금융적 실천은 남성 생계부양자가 제공한 임금을 금융시장 내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주체적 실천으로 재해석되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기여와 주체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승인된다.

계약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잔금은 남편 회사에서 주택자금 장기
용자와 보험회사에서 용자를 받았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빚을 졌
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다.³⁹⁾

무주택우선 순위라고 하지만 무주택자가 엄청 많아요. 때문에 채권상환
액을 기준에 맞게 써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쓴 액수는 3천8백만원 정
도로 약간 많이 썼어요.⁴⁰⁾

39) 〈부모 도움없이 내집을 마련한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8인의 '내집 마련기': 분양 신청을 할 때도 한번쯤 투자가치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먼센스』 제7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월, 557쪽.

40) 〈전세 대신 작은집 마련한 이유&집 장만까지 돈 마련하는 법 공개: 알뜰살뜰 자린고비 정신으로 결혼 3년 만에 내집 마련해 서울 왔어요〉, 『우먼센스』 제8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1월, 745쪽.

이 기사들은 독자에게 특정 시점에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상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금융기관명과 상품명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알론이 개념화한 ‘금융의 여성화(feminization of finance)’ 과정의 핵심적 실천으로 위치 지어진다. 알론은 여성들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개인금융, 모기지금융, 기타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일상활동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공간에 금융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고 지적한다.⁴¹⁾ 이와 같이 가구의 일상생활은 금융기관과의 장기적 금융계약을 통해 매월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금융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 속에서 사적 영역의 가족단위는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에 통합되고, 이러한 금융계약의 일상화는 이후 가족 생애과정 전체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시기 가정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여성들은 단순한 소득 축적을 넘어, 가족의 열망인 ‘내 집 마련’을 금융상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자산화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행위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당시에는 대출, 즉 ‘빚’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여성들은 주택담보대출과 할부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똑똑한 경제 실천’이자 가족을 위한 모범적인 미래 준비로 서사화되며 점차 일상화된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제도적 주택금융화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문화적·상징적 금융실천이 대중담론 속에 내재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금융주체화 역시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

41) Allon, F. The feminisation of finance: Gender, labour and the limits of inclusion. In *Gender and labour in new times*, Routledge. 2008. pp.12-30.

5. 나가며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되기 이전, 민간금융의 확장과 가계 단위의 경제실천이 빠르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 글은 이 시기의 여성지 『우먼센스』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주제로 구성된 수기와 사례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주택금융화의 제도화에 선행하는 일상적·상징적 금융화 실천의 기반을 규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담론 속 주요 서사를 통해 여성들이 어떻게 금융적 책임과 윤리적 자율성을 내면화하며, 가족경제의 핵심 기획자로서 재정적 자아를 구성해나갔는지를 밝혔다.

여성지는 당시 여성 독자들을 단순한 금융정보의 수용자가 아니라, 주체적 학습을 수행하는 능동적 존재로 구성하였다. 절약, 근검, 미래를 위한 자산축적이라는 실천은 가족을 위한 헌신과 결합된 윤리적 실천으로 서사화되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 서사는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적극적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작동하였다. 금융자율화 이후 여성들은 주택을 매개로 금융계약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소득 중심이었던 가계경제에 금융부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적 금융 관계를 형성하는 등 금융의 여성화(feminization of finance)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여성의 금융실천은 소득의 축적에 불과했던 가계를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과 결합하여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 금융능력 성취로 강조되기 보다는 금융적 절약 실천과 감사와 겸양의 태도를 전제하는 성별화된 통제 메커니즘을 동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 금융주체화는 자유와 통제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특징을 지닌다.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핵심 지점은, 여성 독자들에게 제시된 ‘내 집 마련’ 담론이 단순히 금융 실천의 방법론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자가 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어떤 가족이 모범적인지를 규율하는 강력한 규범적 메시지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구입이라는 행위는 남성 배우자와의 긴밀한 협력, 자녀 양육,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전제하며, 결과적으로 도시 핵가족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였다. 여성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절약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존재로 구성되었고, 이는 금융화된 경제주체로서의 자격을 승인받는 동시에 성별화된 돌봄 역할과 가족 내 위치를 고정하는 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 금융주체화 과정이 젠더 규범 재생산이라는 이중의 메커니즘을 동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여성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라는 표면적 변화 너머에서, 금융시장 참여의 조건과 실천이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금융주체화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개인화된 자율성과 선택권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들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계약을 통해 시장 자본과 결속되는 방식으로의 주체성을 획득했지만, 이러한 능동성은 성별분업 구조 속에서 윤리적 책임과 자아 규율의 강화라는 형태로 재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성별화된 방식의 재정적 자아를 추구하도록 유도되었다.

본 논문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금융화 연구가 주로 제도, 시장,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매체를 통해 구성된 주체화의 서사적 장치를 분석함으로써 금융화의 문화적·상징적 층위를 조명하였다. 둘째, 수기 및 사례 기사라는 장르가 감정, 윤리, 실천을 결합하며 독자와 정동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금융화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닌 주체의 감정구조를 포함하는 사회적 재구성의 과정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여성들의 금융주체화는 금융화된 시민성의 확장만이 아닌 가족주의 내 젠더질서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형식과 연동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1990년대 금융자율화 이후 가정 내 여성이 주도한 주택금융화 과정은 소득축적 중심인 가계를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자가소유를 통한 자산축적 경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여원』 제7권 2호, 학원사, 1977년 2월.
『우먼센스』 제34호, 서울문화사, 1991년 5월.
『우먼센스』 제35호, 서울문화사, 1991년 6월.
『우먼센스』 제46호, 서울문화사, 1992년 5월.
『우먼센스』 제7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월.
『우먼센스』 제81호, 서울문화사, 1995년 4월.
『우먼센스』 제88호, 서울문화사, 1995년 11월.
『우먼센스』 제96호, 서울문화사, 1996년 7월.
『우먼센스』 제103호, 서울문화사, 1997년 2월.
『우먼센스』 제105호, 서울문화사, 1997년 4월.

2. 논문과 단행본

-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20.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8호, 2007, 387-416쪽.
남은영, 「1990년대 한국 소비문화: 소비의식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76호, 2007, 189-225쪽.
수잔나 D. 월터스,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김현미 외 역, 또하나의 문화, 1999.
이은지,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후빈·홍다솜,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 1 :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 『공간과 사회』 제81호, 2022, 9-61쪽.
장성수, 「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시장의 전개: 문민 3 대통령의 주택정책 평가 시론」, 『환경논총』 제43호, 2005, 323-339쪽.

-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여성지 “여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3호, 2009, 468-509쪽.
-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호, 2010, 307-344쪽.
-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3호, 2006, 313-331쪽.
- 최시현, 「주택 담보 정동경제」, 『문화과학』 제106호, 2021, 59-75쪽.
- 최경희, 「1960년대 초기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의 ‘교양화’ 연구:[가정생활]의 연애·결혼담론과 박경리의 <암흑의 사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9호, 2012, 395-426쪽.
- 최경희, 「1960년대 초기 여성지와 소설에 나타난 국가주의 연구:[가정생활], [여상], [여원]과 손창섭의 [부부]에 나타난 여성의 국민화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57호, 2018, 85-406쪽.
- 한경희, 「1960년대 주부 ‘생활수기’ 붐의 여성문학사적 의의」, 『여성문학연구』 제59호, 2023, 156-194쪽.
- 함인희, 「가족주기의 변화와 주부역할의 딜레마-여성잡지 광고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1권 2호, 1999, 47-72쪽.
- Aitken, R, “Capital at its fringes”. *New Political Economy* 11(4), 2006, pp.479-498.
- Allon, F, “The feminisation of finance: Gender, labour and the limits of inclusion”. In *Gender and labour in new times*, Routledge. 2008. pp. 12-30.
- Zelizer, V. A, “The purchase of intimacy”. *Law & Social Inquiry*, 25(3), 2000, pp.817-848.
- Enloe, C. J., *Molding “Economic Woman”: Conflicting Portrayals of Women’s Economic Roles in Magazines Published During the Franco Dictatorship*, 2022, (Doctoral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 Hochschild, A. and Machung, A.,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2012

Park, E., "South Korean housewives' emerging economic authority and contestation of domesticity during the Cold War Era", *Gender & History* 36(2), 2024, pp.711-733.

Zelizer, V. A., "The social meaning of money: special m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2), 1989, pp.342-377.

_____, "The purchase of intimacy", *Law & Social Inquiry* 25(3), 2000, pp.817-848.

3. 기타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데이터로 본 서울, 「지표로 본 서울 변천 20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대출, 이러다 큰 일 납니다」, 2007.3.12.

Abstract

Homeownership Discourse in 1990s Korean Women's Magazines and the Formation of the Woman Financial Subject - Focusing on the magazine *Woman Sense*

Choi, Sihyun(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women financial subjects were narratively constructed during the early stag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by analyzing personal essays and case articles on “homeownership” published in Korean women’s magazines in the 1990s. These magazines functioned not merely as sources of financial information but as everyday cultural devices that taught readers financial ethics and gendered practices. In this process, women’s desire for homeownership was legitimized through its close alignment with the moral duties of housewives, while the structural causes of housing insecurity were obscured and individualized through narratives of “bad landlords and suffering tenants.” The practice of purchasing housing through thrift and mortgage borrowing was framed as a moral obligation of women responsible for family well-being, through which readers gradually internalized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gendered self-discipline.

Amid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during the 1990s, women actively entered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through housing purchases, resulting in a transformation in which the private domain of the family became institutionally and culturally integrated into financial markets. This shift illustrates the concrete dynamics of women's incorporation into financial markets at the level of everyday life and household economy—a process characterized by the feminization of finance. Such practices suggest that symbolic and everyday financialization had already been internalized prior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led housing financialization that formally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KHFC) in 2004. By analyzing these narrative constructions, this study reveals the gendered trajectorie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female financial subjects in South Korea.

(Keywords: 1990s Korea, women's magazines, homeownership, financial subjectification, housing financialization, Feminization of finance, housewife, 'Woman Sense')

논문투고일 : 2025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6일